

특집

사회계층에 따른 청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 : 부의 학력과 직업·진로교육이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원지영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ORCID: <https://orcid.org/0000-0002-7171-4970>)

투고일: 2020.10.28. / 심사완료일: 2020.12.02. / 게재확정일: 2020.12.10.

요약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취업 여부 및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아버지의 높은 학력은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청년 자녀의 취업을 격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도 높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비공식적 지지 하에 취업 시기를 미루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임금 간의 정적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유형에 있어서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과 비교하여 취업 시기는 빠르지만 낮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안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청년, 직업교육, 진로지도 및 상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 임금

I. 서론

최근 청년 고용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적인 고용률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20세에서 29세 사이 청년들의 취업률은 점차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약 5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용률 66.8% 보다 낮은 수치이다(통계청, n.d.). 또한 취업된 청년들 중 약 2/3는 비정규직으로 빈번한 이직을 경험하고 있어 일자리의 안정성 역시 낮은 수준이다(김복순·정현상, 2016).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은 생애 주기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Schoon & Sibbereisen, 2009). 청년들은 진로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진학하여 학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자격조건들을 충족시켜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경력을 축적한다(Warren et al., 2002). 이처럼 인생의 중요한 시기, 불완전고용과 실업의 문제는 일자리와 관련한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든다(Corcoran & Matsudaira, 2005; Hamilton, 1990; Vuolo et al., 2015). 뿐만 아니라 취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무 훈련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인적 자본의 축적을 어렵게 하여 장기적으로 개인의 경력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에 있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들의 경우 이후 성인기 전반에 걸친 경제활동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열악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가족으로부터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은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Osgood et al., 2005).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된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중·고등학생 시기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진로교육과 직업훈련은 이후 노동시장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 및 진로교육이 성인기 초기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20대에서 30대 초반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학교에서의 직업·진로교육 경험이 청년들

의 취업 가능성과 이후 임금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저임금, 불안정 고용 등과 같은 청년고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등교육과정의 직업 및 진로 교육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1) 청소년기 직업교육과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이제까지 청년층의 낮은 고용률과 실업 문제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선행연구들은 국내의 경제의 흐름, 청년층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와 함께,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어렵게 하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우리나라 청년고용을 어렵게 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하였다(강순희·안준기, 2010; 최용환, 2015). 특히, 한국의 청년고용 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학력수준의 향상, 특히 대졸자 비중의 증가로 신규대졸자들이 원하는 직업과 산업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강순희·안준기, 2010; 채구묵, 2004; 최용환, 2015). 고학력자의 증가로 하향식 취업이 증가하고 있고, 학력향상으로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일자리는 거리는 반면, 노동조건이 좋은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어 청년들의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다(채구묵, 2004; 최영섭, 2003). 실제로 2015년 청년 고용실태에 따르면 청년 실업자 중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인 자는 약 34%로 21%를 차지하는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김유선, 2015).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과 대졸 실업자의 증가, 그리고 고등교육이 소득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1997년 특성화고 육성정책을 들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에 따르면 특성화고등학교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2010년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이 마련되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2년에는 모든 전문계고가 특성화고로 전환되었다. 또한

청소년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의 진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입안자와 학교는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 이르는 시기 진로교육의 강화로 연결되었다(Geurts & Meijers, 2009). 2010년대 청소년기 진로발달을 돕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기관들에 도입되었고, 2015년에는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었으며, 2016년 제 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증가하는 사회적 우려와 청소년기 진로교육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로발달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성인기 초기 노동시장 성과와 어떠한 관련성을 보이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가정환경은 청년들이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간주되어져왔다. 현대사회에서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획득하는 시기는 갈수록 지연되고 있다.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 우세한 일자리 획득을 위해 인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가정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반하여 가족으로부터의 비공식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청년들은 학교에서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Osgood et al., 2005).

세대 간 계층의 대물림 현상에 대한 연구들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교육기회 및 성과와 함께 노동시장 성과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경희·민인식, 2016; Peterson et al., 1986; Vuolo et al., 2013). 이에 마코비츠(Markovits, 2019)는 기회의 평등을 통해 사회계층 간 이동이 보장된다고 주장한 능력주의(Meritocracy)가 오히려 사회계층의 대물림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즉, 부유층 자녀들만을 위한 엘리트 교육을 통해 능력의 대물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적 신념은 이들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했다는 도덕적 우월감과 함께 소득과 지위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을 비난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수의 연구들은 이와 같은 사회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지지하는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웰스와 긴티스(Bowels & Gintis, 1976)의 연구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유진(2008)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20대 자녀의 임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행연구들은 취약계층의 경우, 물질적 자원의 부족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해 낮은 기대 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의 세대 간 대물림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박범기, 2020; 신명호 2010; Boudon, 1974; Erikson & Jonsson, 1996; Archer, 2003). 나아가서, 고등교육을 받아 본 경험이 없는 부모들은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이나 이후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언하기 어렵고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회관계망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신명호, 2010; 원지영 2011). 또한,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발생한 스트레스, 우울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의 부정적 심리 상태 역시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노법래, 2013; 최윤미·이문희, 2011; Conger et al., 2010). 따라서 취약계층의 경우, 청소년기 진로탐색의 기회가 제한되고 진로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취업 여부, 임금, 직무만족도 등의 노동시장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다(곽수란·이기중, 2014; 김성남, 2013; 박재민 외,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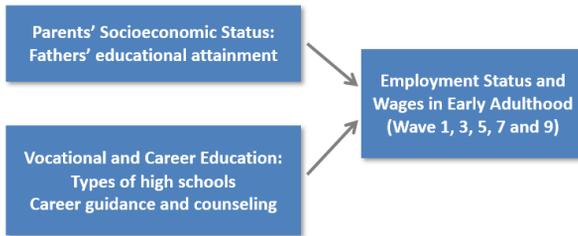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가정환경적 요인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진입하면서 점차 감소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임헌정 외(2015)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학생들의 진로발달은 고등학생 시기와는 달리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보다는 학교에서의 진로교육과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년 자녀의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가 성인기 초기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연구 모형

본 연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청소년기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및 진로 교육 경험이 성인기 초기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사회계층을 반영한다면, 중등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업 및 진로 교육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평등하게 제공되는 공적 교육 서비스로 보았다.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23세에서 32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제활동 여부와 임금 수준에 대한 자료를 연령 별로 분석함으로써 가정환경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진로 교육 경험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노동시장 성과에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ure 1〉 Research Model: Determinants of Wages in Early Adulthood

2. 데이터 및 표본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2007년부터 수집한 청년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청년패널은 1차 조사 시기인 2007년 현재 15세에서 29세 해당하는 10,206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해마다 이들을 추적하여 자료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걸친 성인기 초기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노동시장 진입과 관련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표본 수를 확보하고자 1983년과 1984년 출생한 1,341명을 대상으로 2007년에서 2015년에 걸쳐 9년간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부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부모의 학력을 들 수 있다. 이 때, 아버지의 학력은 어머니의 학력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며($\chi^2(df)=922.70(4), p<0.001$), 가구소득

에 대해서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다. 따라서 본 논문은 아버지의 학력 수준을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아버지의 학력은 (1) 고등학교 미 졸업, (2) 고등학교 또는 2·3년제 대학 졸업, (3)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세 가지 수준으로 나뉘어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때, 전체 표본의 2.3%(33명) 만이 아버지의 학력을 2·3년제 대학 졸업으로 보고하고 있어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집단과 동일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2) 직업·진로 교육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교육 경험은 고등학교 유형을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청년패널 조사는 응답자들이 졸업한 고등학교의 유형을 일반계/인문계, 특목고(과학고, 외고, 자립형사립고), 상업계, 공업계, 기타 전문계, 예체능계, 기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유형을 졸업 후 취업을 위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실업계열 고등학교와 대학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고등학교의 두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를 직업 교육 경험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그들이 전공 선택, 진학, 취업 등을 결정하기 위해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응답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의 내용으로는 개인상담,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통한 집단 상담, 직업·진로 관련 체험학습, 심리검사, 직업 및 진로 관련 동영상 시청, 진로 관련 전문가 강의 등이 포함되었다.

3) 임금

조사대상자 중 경제활동상태에 대한 질문에 '일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취업자의 경우 급여 단위와 임금 수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임금은 응답자의 연령이 23세에서 32세에 해당하는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과 2015년 시점의 임금 값을 활용하였다. 이 때 모든 임금은 월평균 임금으로 환산되었다. 또한 임금 분포의 정규성을 고려하여 자연로그를 이용하여 변환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4) 통제 변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서 조사대상자의 성별, 학교 재학 여부, 자

너 유무 등이 통제변수로 분석 모형에 포함되었다.

4. 분석방법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사회경제적 지위 관련 변수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 및 직업 관련 교육이 어떻게 성인기 초기 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인 임금 수준은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이라는 두 가지의 복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즉, 응답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임금 종속변수는 중단자료가 된다. 종속변수인 임금을 '0'으로 놓고 추정하든, 아니면 무시하고 관측치가 가능한 유급 근로자에 대해서만 추정하든 일반적인 최소제곱추정 (ordinary least squares)에 편향(bias)이 발생한다. 즉, 유급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부의 학력과 직업·진로교육의 영향을 분석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무작위 표본 추출의 가정에 위배되므로 표본선택의 편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Cragg의 2단계 모형을 사용하여 표본 선택의 편의를 수정하고자 하였다. Cragg의 2단계 모형은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 프로빗(probit) 모형을 사용하여 경제활동 여부를 예측하고 두 번째로 절단 회귀 모형 (truncated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임금 수준의 결정요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아버지의 학력', '고등학교 유형', '진로도 및 상담 경험'을 주요 독립변수로 하고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여부와 임금을 예측하였다. '성별', '학교 재학 여부', '자녀 유무'는 통제 변수로서 연구 모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패널조사의 자료를 R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결과

아래 <Table 1>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1983년과 1984년에 출생한 응답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성별 분포에 있어서 표본의 55%는 남성으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의 비율 보다 높았다. 대상자의 연령이 23에서 24세 사이에 해당하는 2007년 조사에

서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3명이었으며 대상자 가운데 학교에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4.3%로 나타났다.

대상자 중 졸업 후 취업을 목표로 하는 실업 계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다고 응답한 경우는 23%로 나타났으며 약 77%는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계열이나 특목고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동안 학교에서 진로발달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등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약 63%가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들 중 대다수는 하나 또는 두 종류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가족 환경과 관련하여 아버지의 학력을 묻는 질문에 약 20%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미졸업자라고 응답하였으며, 약 57%는 고등학교 졸업 또는 2~3년제 대학을 졸업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약 23%는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라고 응답하였다.

청년들의 취업 및 임금을 살펴보면, 23세에서 24세 시기에 대상자들의 29%가 취업하였고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평균 130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취업률과 임금은 성인기 초기 점차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31세에서 32세에 해당하는 9차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률이 48.4%, 임금은 평균 267만 원이었다(〈Table 1〉 참조).

〈Table 1〉 Result of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n	%
Year of birth	1983	831	62.0
	1984	510	38.0
Gender	Male	737	55.0
	Female	604	45.0
Having a child before the age 23or24		34	2.5
School enrollment	W1	594	44.3
	W3	224	16.7
	W5	75	5.6
	W7	27	2.0
	W9	23	1.7

Variable		<i>n</i>		%				
High school types	General	1018		77.0				
	Voc-tech	304		23.0				
Participation i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rograms	0	845		63.0				
	1	259		19.3				
	2	175		13.0				
	3 or more	62		4.6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Lower than high school grad.	275		20.5				
	High school grad, or 2-3 year college	763		56.9				
	4 year college or higher	302		22.5				
Variable	Time	<i>n</i>	%	Mean	Med.	<i>SD</i>	Min	Max
Wage (<i>n</i> =1341)	W1(Age 23 or 24)	391	29.2	130.64	125.00	45.46	0.00	440.00
	W3(Age 25 or 26)	536	40.0	176.16	150.00	175.10	0.00	2400.00
	W5(Age 27 or 28)	644	48.0	214.13	200.00	169.92	0.00	2400.00
	W7(Age 29 or 30)	679	50.6	240.80	216.67	163.94	0.00	3600.00
	W9(Age 31 or 32)	649	48.4	267.14	250.00	145.29	0.00	2880.00

2. 2단계 모형 분석 결과

1) 2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본 연구는 Cragg의 2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청년의 근로 상태와 임금을 예측하였다. 아래 <Table 2>는 아버지의 학력, 고등학교 유형,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가 20대 초반 청년들의 고용과 임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유형과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재학 여부를 통제 한 이후에도 23세에서 24세 사이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진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취업 여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아버지를 둔 청년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아버지를 둔 자녀들 보다 취업 가능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 자녀 유무, 학교 재학 여부는 취업 상태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보다 20대 초반에 해당하는 1차년도 조사 시 취업률이 낮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취업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 수준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23세에서 24세 취업한 청년들의 임금은 고등학교 유형,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아버지의 학력 등 주요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 성별에 따른 차이로 남성이 여성 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Determinants of Employment and Wages at the Ages 23 or 24.

	Wave 1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06	0.12	-0.54	4.70	0.10	48.65***
Gender (0=female)	-0.23	0.09	-2.43*	0.20	0.08	2.38*
Having children at W1	-1.01	0.28	-3.59***	0.13	0.31	0.42
Enrolled in school at W1	-1.83	0.14	-12.63***	-0.27	0.24	-1.10
High school type (0=general)	0.39	0.10	3.81***	-0.01	0.08	-0.13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4	0.05	-0.86	-0.01	0.04	-0.32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10	0.11	-0.92	0.09	0.09	1.01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40	0.15	-2.68**	0.17	0.14	1.28
Sigma	-	-	-	0.69	0.03	24.98***
AIC / Log-Likelihood (df)	1,055,205			-265,85(9)		
N	1,321					

* $p < 0.05$, ** $p < 0.01$, *** $p < 0.001$

2) 20대 중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아버지의 학력과 고등학생 시기 직업 및 진로 교육이 20대 중반에 해당하는 25세에서 26세 청년들의 취업과 임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Table 3> 과 같다.

<Table 3>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25 or 26.

	Wave 3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35	0.10	3.45***	4.99	0.04	112.77***
Gender (0=female)	-0.62	0.08	-8.06***	0.12	0.04	3.39***
Having children at W1	-1.13	0.27	-4.19***	-0.06	0.17	-0.38
Enrolled in school at W3	-1.63	0.18	-9.11***	-0.15	0.15	-1.01
High school type (0=general)	0.18	0.09	2.00*	-0.04	0.04	-0.06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6	0.04	1.60	-0.01	0.02	-0.41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23	0.10	-2.32*	0.02	0.04	0.49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28	0.12	-2.37*	0.15	0.06	2.74**
Sigma				0.40	0.01	32.28***
AIC / Log-Likelihood(df)	1507.4			-265.85(9)		
N	1321					

* $p < 0.05$, ** $p < 0.01$, *** $p < 0.001$

아버지의 학력과 청년 자녀의 취업 여부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청년들과 비교하여 아버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청년들의 취업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등학교의 유형에 있어서는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비교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은 취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밖에 남성이 25세에서 26세 사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확률은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20대 초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경우 취업률은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25세에서 26세 청년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절단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은 20대 중반 청년 자녀의 임금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 그 자녀의 임금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미졸업자인 자녀들 보다 더 높았다. 그러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은 청년들의 임금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그 밖에 남성 취업자의 경우 여성 취업자 보다 임금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20대 후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아래의 <Table 4>는 20대 후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이 고등학교 유형과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그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먼저 20대 중반까지 고등학교 유형과 아버지의 교육 수준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를 결정하는 유의한 예측 변수였던 반면, 20대 후반에서의 취업 여부는 고등학교 유형이나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모두 유사한 수준의 취업률을 보였고, 아버지의 학력 역시 취업률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0대 후반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녀 유무와 학교 재학 여부로 자녀가 있는 경우, 그리고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취업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절단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고등학교 유형과 아버지의 학력에 따라 청년들의 임금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먼저,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청년 자녀의 임금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응답자의 경우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미졸업인 응답자 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는 다수의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20대 후반에도 아버지의 학력이라는 가정 환경적 요인이 청년들의 임금과 여전히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고등학교 유형과 임금과의 관계를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그 임금 수준

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27세에서 28세에 이르는 시기 임금 수준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남성이 여성보다 그 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27 or 28.

	Wave 5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14	0.10	1.42	5.16	0.04	123.92***
Gender (0=male)	-0.09	0.07	-1.23	0.18	0.03	5.88***
Having children at W1	-1.09	0.28	-3.93***	-0.12	0.18	-0.67
Enrolled in school at W1	-0.88	0.17	-5.06***	0.09	0.11	0.83
High school type (0=general)	0.08	0.09	0.97	-0.12	0.04	-3.08**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4	0.04	1.01	-0.00	0.02	-0.13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16	0.09	-1.72	0.01	0.04	0.27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13	0.11	-1.22	0.11	0.05	2.20*
Sigma				0.39	0.01	35.55***
AIC / Log-Likelihood(df)	1794			-297,51(9)		
N	1321					

* $p < 0.05$, ** $p < 0.01$, *** $p < 0.001$

4) 30대 진입 시기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

아래 〈Table 5〉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취업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자녀 유무, 학교 재학 여부로, 본 분석 모형의 주요 변수인 아버지의 학력과 학교 유형,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은 이 시기 취업 여부와 무관하였다. 취업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인 중 하나로 성별을 살펴보면, 청년들이 29세에서 30세에 이르게 되면서 취업률에 있

어서의 성차는 20대 초·중반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이전과는 반대로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들의 주요 경력 단절 원인이 되는 결혼과 첫 출산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통계청, 2019). 또한 자녀양육과 학교 재학은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시기 임금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교 유형과 성별로 나타났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응답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그 임금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보면, 남성의 임금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참조).

〈Table 5〉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29 or 30

	Wave 7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14	0.10	-1.44	5.29	0.04	134.59***
Gender (0=female)	0.22	0.07	3.19**	0.21	0.03	7.55***
Having children at W1	-1.29	0.32	-4.05***	0.05	0.21	0.20
Enrolled in school at W1	-1.09	0.30	-3.67***	0.25	0.18	1.40
High school type (0=general)	0.01	0.09	0.17	-0.13	0.03	-3.96***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3	0.04	-0.89	-0.00	0.01	-0.31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12	0.09	1.32	0.01	0.04	0.18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07	0.11	0.65	0.06	0.04	1.39
Sigma	-	-	-	0.35	0.01	36.50***
AIC / Log Likelihood (df)	1794.4			-253.98(9)		
N	1321					

* $p < 0.05$, ** $p < 0.01$, *** $p < 0.001$

5) 3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

아래의 <Table 6>은 아버지의 교육 수준과 고등학교 유형이 30대 초반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고등학교 유형 및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 아버지의 학력 수준은 20대 후반의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취업 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취업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는 성별과 자녀 유무로 나타났으며 이는 20대 후반 결과와 유사하였다. 즉, 남성의 취업 가능성이 여성 보다 높았으며 자녀가 없는 경우가 자녀가 있는 경우 보다 취업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Determinants of Employment Status and Wages at the Ages 31 or 32

	Wave 9					
	Selection prediction			Wage prediction		
	Probit regression			Truncated regression		
	Coef	SE	Z	Coef	SE	t
Intercept	-0.19	0.10	-2.00*	5.34	0.04	134.76***
Gender (0=female)	0.35	0.07	5.03***	0.27	0.03	9.43***
Having children at W1	-0.84	0.28	-3.02**	0.03	0.16	0.21
Enrolled in school at W1	-0.39	0.27	-1.41	-0.16	0.12	-1.30
High school types (0=general)	-0.01	0.09	-0.09	-0.19	0.03	-5.46***
Career development program	-0.05	0.04	-1.26	0.00	0.02	0.20
Father's edu: High school or 2-3yr college	-0.00	0.09	-0.00	0.04	0.04	1.08
Father's edu: 4yr college or higher	-0.00	0.11	-0.02	0.11	0.04	2.54*
Sigma				0.35	0.01	35.61***
AIC / Log-Likelihood(df)	1802			-226.99(9)		
N	1321					

* $p < 0.05$, ** $p < 0.01$, *** $p < 0.001$

절단 회귀 분석을 통해 임금 수준을 예측한 결과를 보면, 아버지의 학력과 고등학교 유형은 여전히 청년들의 임금 수준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 이상인 청년들의 임금은 아버지의 학력이 고등학교 미졸업인 청년들보다 더 높았다. 또한 학교 유형은 임금 수준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는 변수로, 실업계 고등학교 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의 임금 격차는 30대 진입 이후까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임금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격차를 보였는데,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함의

청년들은 성인기에 진입하면서 학교에서 일자리로의 이행을 경험하게 된다. 취업은 결혼, 자녀 출산 및 양육과 함께 성인기 초기 성취해야할 중요한 발달과업 중 하나로 경제적 자립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져 왔다(Havighurst, 1972). 그러나 최근 청년고용의 실태를 살펴보면, 청년층 중 다수가 일자리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업과 저임금, 고용 불안 등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기 초기 취업과 관련하여 인적 자본의 축적은 청년들의 취업 여부 뿐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어져왔다. 출생 이후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학교에서 축적한 인적 자본은 취업과 같은 성인기 발달 과업을 성취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된다.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과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 및 직업 교육이 20대에서 30대 초반에 이르는 성인기 초기 동안의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청년층 중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일자리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대안 모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1. 연구 결과의 요약

먼저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학력으로 측정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청년들의 취업 여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20대 중반에 이르는 시기까지는 아버지의 높은 학력이 청년 자녀들의 취업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게 되면 아버지의 학력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아버지의 학력은 청년 자녀의 취업 여부 뿐 만 아니라 취업한 자녀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주었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임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정적 상관관계는 자녀가 30대에 진입한 이후까지도 유효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중산층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비공식적 지지 하에 취업 시기를 뒤로 미루고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보다 많은 인적 자본을 축적함으로써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획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Peterson et al., 1986; Vuolo et al., 2015).

둘째, 본 연구의 결과는 직업 교육에 중점을 두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노동시장 진입의 시기는 빠르지만, 이처럼 이른 노동시장 진입이 이후 임금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20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청년들의 경우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그러나 20대 후반에 이르면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와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취업률 격차는 유의하지 않은 수준으로 줄어들어 반면, 이들 간의 임금 격차는 유의한 수준으로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20대 후반 이후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였다. 이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이른 취업을 통한 경력 축적이 그에 비례하는 임금 인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성별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진입 이후까지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먼저 성별에 따른 취업률의 차이는 연령에 따라 변화하였다. 즉, 20대 초반까지는 여성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높았던 반면, 20대 후반에 이르면서 남성의 취업률이 여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결혼 및 출산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인기 초기 전반에 걸쳐 남성의 임금 수

준은 여성 보다 높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는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의 임금 격차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진명구, 2020).

2. 연구의 함의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음의 몇 가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청년 자녀의 성인기 초기 일자리의 진입 경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산층 청년들의 경우 높은 수준의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미루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이러한 전략은 보다 나은 일자리 획득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 청년들의 경우 부모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해 취업 시기를 지연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는 경력개발이 어려울 수 있다. 노동시장 진입에 있어서의 계층 간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진입에 유리한 인적 자본 축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청년실업자 중 대학교 졸업자의 높은 비율은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 교육을 강화하여 노동시장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졸업 후 취업을 목적으로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직업교육에 중점을 둔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진 일반 고등학교 졸업자들 보다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직업 교육 강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오히려 성인기 전반에 걸친 경력개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가정환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방하남·김기현, 2002)의 결과는 취약계층 청소년의 경우 가능한 빠른 시기에 취업하도록 요구되고 대학 진학 가능성이 낮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 저임금

의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력에 따른 임금의 격차를 완화하는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 한 취약계층 청소년들 중 상당수는 학업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고 중도 탈락률 또한 높다(Walsh, 2005). 이러한 현실은 이들에게 진학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 못지않게 이들의 학업 능력을 증진시키고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Walsh, 2005).

셋째, 선행연구의 결과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진로발달 수준 격차를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윤정·김지은, 2012; 임현정 외, 2015).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중등교육과정에서의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성인기 초기 취업 여부 및 임금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로교육이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진로결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김기현 외, 2014; 김효선·양승호, 2012)이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성과로 연결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 성과에 있어서 성별에 따른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임금의 격차는 성인기 초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오히려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 비율이 남자보다 낮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출산 및 자녀양육으로 인해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여성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남성보다 낮은 임금으로 이들의 일자리가 충분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지 못한 까닭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인기 초기 여성들의 노동시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성차별의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아버지의 학력과 학교에서의 직업 및 진로 교육이 청년층의 일자리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시차를 두고 조사된 패널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가정환경과 학교 교육이 성인기 초기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84년과 1985년생

청년들만을 대상에 포함하였고, 따라서 이들의 고등학교 재학 기간은 중등교육과정에서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강화된 시점에 선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중등교육과정에서 실시되고 있는 체험 중심 진로교육의 장기적 효과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각 조사 시기 별로 분석이 진행되어 청년들의 노동시장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의 추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일자리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임금과 같은 경제적 보상 측면뿐 아니라 업무의 자율성, 고용안정성 등의 비금전적 측면과 당사자의 주관적 만족도를 고려한 다면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순희·안준기(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2), 201-231. [Kang, Soon-hie & Ahn Jun-ki (2010). Stigma effect of unemployment of the college graduates. *Journal of Korean Economics Studies*, 28(2), 201-231]
- 강순희(2016). 취업청년의 초기 일자리 변동과 고용안정성. **한국청소년연구**, 27(4), 5-29. [Kang Soon-hie (2016). The early stages of labor market transition by youth: Changes in employment and stability. *Studies on Korean Youth*, 27(4), 5-29.]
- 김강호(2017). 마이스터고 교육의 취업효과 : 특성화고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8, 1-23. [Kim Kang-ho (2017). The employment effect of Meister school education: Compared to specialized high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8, 1-23.]
- 김기현·유홍준·오병돈(2014). 진로체험의 효과 : 진로성숙도와 학업성취도. **직업교육연구**, 33(3), 19-36. [Kim Ki-hun, Yoo Hon-joon, & Oh Byeong-don (2014). The effects of career experiential learning: Career maturity and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3(3), 19-36.]
- 김복순·정현상(2016). 최근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변화. **월간노동리뷰**, 1월호, 91-108. [Kim Bok-soon & Jung Hyun-sang (2016). Recent changes in the non-regular labor market. *Monthly Labor Review*, January, 91-108.]
- 김성남(2013).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32(3), 141-162. [Kim Seoung-nam (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2(3), 141-162.]
- 김유선(2015). **청년고용실태와 대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Kim You-sun (2015). *Youth Employment Status and Solutions*.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te]
- 김효선·양승호(2012). 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및 학생특성이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 3수준 다층모형을 이용하여. **직업교육연구**, 31(1), 57-74. [Kim Hyo-sun & Yang Seung-ho (2012). The effect of high school and students' characteristics on career maturity in Seoul: Using multi-level mode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1), 57-74.]
- 노법래(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경제적 불안정과 여가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4(3), 171-193. [Roh Beop-rae (2013). A longitudinal study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the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The impact of economic instability and leisure. *Studies on Korean Youth*, 24(3), 171-193.]
- 박범기(2020). 저소득층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태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적질연구**, 4(1), 33-53. [Park Bum-ki (2020).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 perceived by the youth from low-income family on their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Quality*, 4(1), 33-53.]
- 박재민·엄미정·김윤영(2010). 전공·직업 일치와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3(2), 1-20. [Park Jae-min, Um Mi-jeung & Kim Yun-young (2010). An analysis of long-term major-job

- match and labor market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3(2), 1-20.]
- 방하남·김기현(2002). 기회와 불평등 : 고등교육 기회에 있어서 사회계층간 불평등의 분석. **한국사회학**, 36(4), 193-222. [Phang Ha-nam & Kim, Ki-hun (2002). Opportunity and inequality: Educational stratifi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6(4), 193-222.]
- 신명호(2010).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1(2), 217-246. [Shin Myung-ho (2010). The academic performance gap between social classes and parenting practi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1(2), 217-246.]
- 여유진(2008). 한국에서의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 경향에 대한 연구. **보건사회연구**, 28(2), 53-80. [Yeo Eu-gene (2008). A study of the influence of education on social mobility.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28(2), 53-80.]
- 원지영(2011). 학력과 구직경로가 청년들의 첫 일자리 임금수준과 전공일치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12), 1-27. [Won Ji-young (2011). The effects of educational attainment and sources for career information on wages and job-education match in the first job among young peopl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12), 1-27.]
- 이경희·민인식(2016). **직업 및 소득계층의 세대 간 이전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Lee Kyung-hee & Min In-sik (2016). *A Study on Intergenerational Transfer of Occupational and Income Class*, Korea Labor Institute]
- 이기종·곽수란(2014). 가정배경과 청년기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7(3), 203-227. [Rhee Ji-jong & Kwak Soo-ran (2014). The effects of family background and career development of adolescents on occupational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7(3), 203-227.]
- 이수용·이은수·홍세희(2016).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형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직업능력개발연구**, 19(3), 137-162. [Lee Soo-yong, Lee Eun-soo & Hong, Se-hee, (2016). Effects of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on labor market outcomes: Applying the two-part growth mixture mode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9(3), 137-162.]
- 임현정·김양분·김난옥(2015). 대학 입학전후 진로성숙 변화의 영향요인 탐색.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8(3), 27-56. [Im Hyun-jung, Kim Yan-boon & Kim Nan-ok (2015).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changes in career maturity during transition from high school to colleg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8(3), 27-56.]
- 진명구(2020).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 임금분포공시제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20(3), 27-49. [Jin Myung-gu (2020). Legislative and policy tasks for mitigating the gender wage gap: Focusing on the discussion on the introduction of the wage disclosure system.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20(3), 27-49.]
- 채구묵(2004). 청년실업과 신규대졸자 실업의 실태, 원인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복지학**, 56(3), 159-181. [Chai Goo-mook (2004). An analysis of the realities and causes of youth and new college graduate unemploy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6(3), 159-181.]
- 최영섭(2003). **청년실업문제의 구조적 원인분석과 중장기 정책방향**. 산업연구원. [Choi Young-seop (2003). *The Analysis of Structural Causes of Youth Unemployment Problem and Mid- to Long-term Policy*

- Direction*,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 최용환(2015). 청년 실업률의 영향요인과 정책방향 탐색 : 다국가 패널분석(2000년-2013년)을 통한 증거. **한국청소년연구**, 26(2), 83-113. [Choi Young-hwan (2015). A study on the influential factors and the policy direction for tackling the youth unemployment rate: A panel analysis from cross country data for the year 2000 to 2013. *Studies on Korean Youth*, 26(2), 83-113]
- 최윤미 · 이문희(2011). 진로성숙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청소년상담연구**, 19(2), 171-187. [Choi Yoon-mi & Lee Mun-hee (2011). A study on the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9(2), 171-187.]
- 최윤정 · 김지은(2012). 중고등학생의 진로발달 관련 변인 및 진로교육 경험과 자기주도 학습태도와의 관계 : 다수준 분석의 적용. **아시아교육연구**, 13(2), 81-106. [Choi Yoon-jung & Kim Ji-eun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development variables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among middle and high schoolers: Application of multilevel analysi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3(2), 81-106.]
- 통계청(2019). **경력단절여성 현황** [Statistics Korea (2019). *The Current Status of Career Interrupted Women*].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8878
- 통계청 (연도미상). **경제활동인구조사** [Statistics Korea (n.d.).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http://www-index-go-kr.nciashield.org/unify/idx-info.do?dxCd=4212>
- Archer, L. (2003). Higher education and social class: Issues of exclusion and inclusion. In L. Archer, M. Hutchings, & A. Ross (Ed.), *The Value of Higher Education* (pp. 119-136). London: Routledge Falmer.
- Boudon, R. (1974). *Education, Opportunity and Social Inequality: Changing Prospects in Western Society*. New York, NY: John Wiley and Sons.
- Bowles, S., & Gintis H. (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Liberal Education Reform and the Contradictions of Economic Life*. New York, NY: Basic Books.
- Conger, R. D., Conger, K. J., & Martin, M. J. (2010). Socioeconomic status, family processes and individual developmen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2, 685-704.
- Corcoran, M., & Matsudaira, J. (2005). Is it getting harder to get ahead? Economic attainment in early adulthood for two cohorts. In R. A. Settersten, Jr., F. F. Furstenberg, Jr. & R. G. Rumbaut (Eds.), *On the Frontier of Adulthood: Theory, Research, and Public Policy* (pp.356-395).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rikson, R., & Jonsson, J. O. (1996). *Can Education be Equalized? : the Swedish Ca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Geurts, J., & Meijers, F. (2009). Vocational education in the Netherlands: In search of a new identity. In R. Maclean & D. N. Wilson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Education for the Changing World of Work: Bridging Academic and Vocational Learning* (pp. 483-499). New York, NY: Springer.
- Hamilton, S. F. (1990). *Apprenticeship for Adulthood: Preparing Youth for the Future*. New York, NY: Free Press.

-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NY: David McKay.
- Markovits, D. (2019). *The Meritocracy Trap: How America's Foundational Myth Feeds Inequality, Dismantles the Middle Class, and Devours the Elite*. New York, NY: Penguin Press.
- Murphy, K. M., & Welchs, F. (1989). Wage premia for college graduates: Recent growth and possible explanation. *Educational Researcher*, 18(4), 17-26.
- Osgood, D. W., Foster, E. M., Flanagan, C., & Ruth, G. R. (2005). *On Your Own without a Net*. Chicago, IL: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upert, P., Schweitzer, M., Severance-Lossin, E., & Turner, E. (1996). Earnings, education, and experience. *Economic Review Q*, IV, 2-12.
- Schoon, I., & Sibbereisen, R. K. (Eds.). (2009). *Transitions from School to Work: Globalisation, Individualisation, and Patterns of Diversity*.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uolo, M., Mortimer, J. T., & Staff, J. (2013). Adolescent Precursors of Pathways from School to Work.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1), 145-162.
- Walsh, E. (2005). Child and adolescent well-being: A university program to serve youth in the school setting. In G. P. Mallon & P. M. Hess (Eds.), *Child Welfare for Twenty-First Century* (pp. 205-211).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Warren, J. R., Hauser, R. M., & Sheridan, J. T. (2002). Occupational stratification across the life course: Evidence from the Wisconsin longitudinal stud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7, 323-346.

원지영

현재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 관심 분야는 청년고용, 청소년진로발달, 사회관계망, 아동복지정책, 사회적 기업 등이다. 주요 논문으로는 “청소년의 사회관계가 진로발달과 대학생활 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융합적 연구”(한국융합학회논문지, 2020), “가구소득과 진로지도 및 상담 경험이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019), “인증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유형과 경제적 성과와의 관계”(한국사회복지행정학, 2016), “청년층 이직의 결정요인과 효과”(비판사회정책, 2015) 등이 있다.

E-mail: jywon@kangnam.ac.kr

Abstract

Social Class and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Youth :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and Vocational and Career-related Education on Youth's Transition to the Labor Market

Won, Ji-young

Associate Professor, Div.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experience of vocational and career education in secondary education affected the employment status and wages of young people in early adulthood, using the Youth Panel (YP 2007) data collected by the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since 2007.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high educational attainment of fathers lowered the possibility of employment for youth during their early to mid-20s. However, the difference in the employment rates by fathers' education levels became insignificant when they reached the late 20s. In addition,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affected the wages of young people. For example, the higher the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the higher the wage levels of young people.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young people of the middle class or above delayed their entry into the labor market and invested time in more education and training, relying on parental support. As a result, they later had better jobs than those from lower clas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fathers' educational attainment and their children's wages was still significant even after the children were in their 30s. In addition, young people who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entered the labor market earlier but showed lower wages compared to those who graduated from general high school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young people who were relatively vulnerable in the labor market and provided clues for finding alternatives to help them transition to quality jobs.

Key Words: Youth, Vocational Education, Career Guidance and Counseling, Parents' Socioeconomic Status, Employment, Wages

